

# 외국인 근로자 복지에 관한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김수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분석 논문들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동시출현 행렬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논문들은 2010년부터 202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인 Riss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KCI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키워드를 토대로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단어쌍과 워드클라우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결중심성에 근거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 고용, 문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특히 연결중심성과 워드클라우드 결과는 고용허가제와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핵심 주제임을 나타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 ‘노동’, ‘적응’, ‘사회’, ‘문화’ 등 빈도 있게 나타났다. 분석논문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적응’과 ‘문화’는 사회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일컬으며 이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셋째, 워드클라우드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등록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급한 상황이다.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복지

\*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2020,9), 단기취업(C-4),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전년도들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체류외국인 중 2010년 이후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약 20년 전 90년대 초반에 98%가 넘는 규모였다. 2001년까지 등록체류자 보다 두 배 이상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2003년의 시점으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 이하의 규모로 줄어들었으며 10년 만에 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미등록 체류보다 커졌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0,9).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이들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정서 및 사회적지지 결여 등으로부터 겪는, 외로움,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고용조건, 임금착취 및 인종차별, 충분치 않은 의료혜택, 산업재해, 거주 및 생활 속 불안정 등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유승희, 2020; 천타잉뚱, 2015).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들이 약 20년 동안 큰 규모로 진행되어왔지만, 여전히 복지서비스 진행에 미흡한 점들이 있다. 정지실(2014)에 따르면, 민간, 시민단체인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전적으로 기업, 개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부금 혹은 지자체의 예산에 한정하여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에 발전에 한계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획된 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은 정부, 국가, 민간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이 원활히 되어있지 않았다. 민간, 시민단체는 활동이념과 경험을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사이클에 맞게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복지사업 및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 동향(이정환 · 이성용, 2007)에 따르면, 아주 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들은 임금체불, (성)폭행, 인권침해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연구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들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구동향과 유사

하게 그들은 본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동향을 토대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에 대한 기존 동향연구(이영주·이승민·김영환, 2017)에 따르면, 전체 연구 중 '법/제도/정책', '안전보건실태/근로환경', '의료/건강/보건',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존 동향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이영주·이승민·김영환, 2017)과 사회통합정책(이혜경, 2020)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영주·이승민·김영환(2017)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을 했기에 그 이후 연구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최근 동향 연구의 변화를 탐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정환·이성용(2007)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주제 관련 동향 연구를 진행했지만 2007년 이후 유사한 동향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수행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체류자격 없이 근로를 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거나, 법적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조규식·이선희, 2017).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이후 복지 관련 전체적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연도별 흐름에 따른 동향의 변화를 보여줄 거라 기대 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가 20년 이상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출되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정환·이성용(2007)이 분석했던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연구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며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방대한 연구 규모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동향 분석을 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동향 연구를 통해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연구의 현황과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연구의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과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연구동

향 관련 살펴보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출현빈도, 연결중심성과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 연구 주제의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후,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연구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동향 흐름 속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내 복지 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20,9)에 따르면, 취업자격을 지니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 중 전문인력으로 구분된 외국인근로자는 45,211명,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된 외국인근로자는 449,456명으로 약 10배에 인하는 규모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0,9). 전문인력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의 비자를 지니고 체류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비자를 지니고 체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sup>1)</sup>)’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규정함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체류자격 중 단순기능 외국인력인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 제도, 노동시장 및 생활 실태 분석, 위생 및 보건 실태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중 다수 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상태, 근로권 보장, 사회 보장 실태 관련 연구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최현주·조성식(2017)은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스포츠 참여 제약이 심리적 행복감

1)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되어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승욱(2014)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실태를 비판하며 그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은주·이정미(2014)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인모·전순영(2015)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조명하였다. 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서의 근로 현장 실태를 고발하며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건강권, 근로권, 기본권과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한 논문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허가제가 2004년도에 제도화된 이후 고용허가제의 한계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2012년 이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동향연구에 따르면(이영주·이승민·김영환, 2017),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체 연구 중 약 60% 정도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선행연구 중 주목받고 있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해경(2020)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에서 공공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가 일회적이고 도구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던 사회통합정책 보다 생산과 소비를 견인하는 경제활동의 주체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이다. 이정환·이성용(2007)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주제 관련 동향 연구를 진행한 연구로써,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력도입 및 고용정책, 인권, 지원단체, 조직몰입, 한국어교육, 여가 등에 대한 연구 주제로 진행되어왔음을 밝혔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이후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구로써 NetMiner, UCINET, NetDraw, Pajek, Gephi, R의 SNA 패키지 등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란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 정보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들 간의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 후 빈도수를 토대로 키워드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분석한 네트워크를 일컫는다(이수상, 2012). 키워드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는 ‘노드(node)’, 단어들 간의 관계는 ‘링크(link)’로 구성된다(이수상, 2012). 이러한 분석은 언어 텍스트로부터 특정한 개념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함으로써 계량적인 특성까지 분석하여, 양과 질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

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수상,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동시출현 행렬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여 키워드의 영향력을 시각화된 네트워크 지표로 분석해주는 기법이다(이수상, 2018). 이 분석 방법은 키워드들의 출현 빈도수 분석 외 키워드들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키워드간의 관계와 강도를 한 눈에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서준일, 2015). 뿐만 아니라 이 분석 방법은 키워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돋는다(박치성·정지원, 2013)는 점에서 연구 동향 파악에 유용하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연구된 수많은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혜연·정희모, 2015).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들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한 눈에 동향 분석하기에 용이하다(김태훈·김영순, 2020).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써, 0부터 1의 범위 내에 주제어의 상대적 순위를 평가되어 진다(이수상, 2012: 255).

국내에서 특히 활용 빈도수가 높은 소프트웨어는 NetMiner가 사용되었다(이수상, 2014). 본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방법으로써 선택한 이유는 오랫동안 연구된 수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용이하게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김혜연·정희모, 2015).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논문 동향을 연구한 김태훈·배성훈(2020)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빅데이터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한 안명숙(2018)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분석틀을 형성하였다. 텍스트간의 중심성을 토대로 분석한 김태훈·배성훈(2020)과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분석한 안명숙(2018)을 참고로 분석 틀으로 형성하였다. 김태훈·배성훈(2020)의 연구의 하위 주제들(키워드)에 대한 중심성 분석 방법 및 안명숙(2018)의 출현빈도, 워드클라우드 분석법을 차용하여 빈도 높게 출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도별 연구 동향을 빈도를 숫자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외 단어쌍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핵심 연구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단어쌍 분석을 하여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틀로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단어쌍, 워드클라우드 분석 방법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전체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 및 단어쌍 분석 그리고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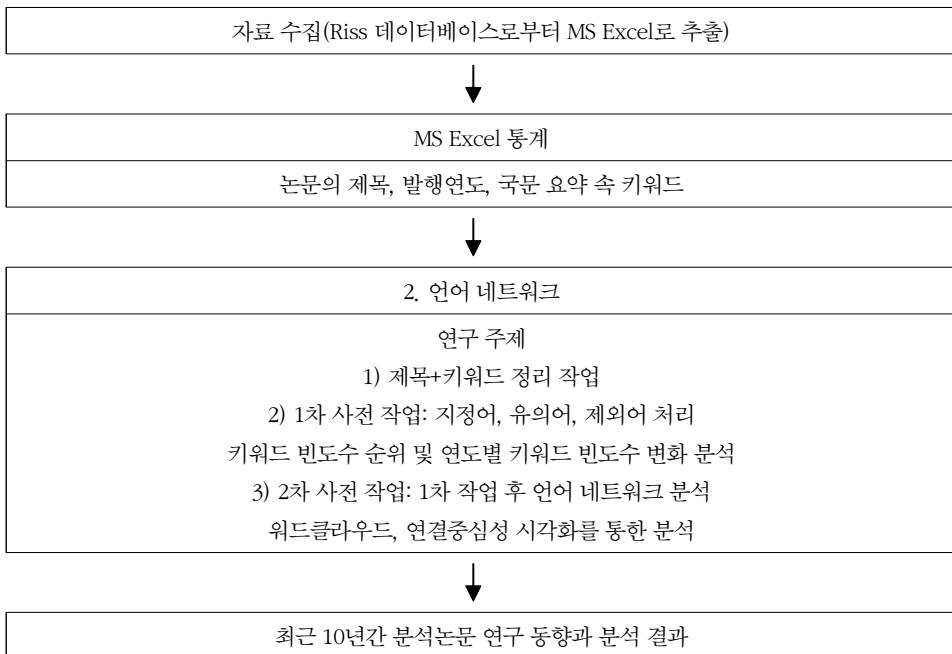
##### 1) 연구물 추출과 선정

핵심어 검색 대상은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논문의 핵심 주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논문 초록에 기입되어 있는 핵심어와 논문의 주제로 국한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이주 근로자’의 주제어로 검색한 후 서지정보가 요약된 엑셀파일로 추출하였다. 이는 엑셀 확장자의 파일이 NetMiner와 호환이 잘 된다는 이유이다. 연구자는 최근 10년 동안 발행된 KCI 등재후보 이상 논문 중 국내에서 연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KCI 등재 혹은 등재 후보에 있는 논문들은 KCI라는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 검증되었기에 논문들의 질적 수준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그 외에 일반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검색한 결과 총 533편, ‘외국인 근로자’를 검색한 결과 총 64편, ‘이주 노동자’를 검색한 결과 총 854편, ‘이주 근로자’로 검색한 결과 총 141편이 나왔다. 검색된 논문들 중 중복되는 논문들은 분석 논문에서 제외했으며, 복지정책은 복지(welfare) 단어 자체의 의미인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논문들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특성이 다소 짙은 논문들 또한 제외하였다. 연구자는 그러한 논문들이 특정한 종교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11건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논문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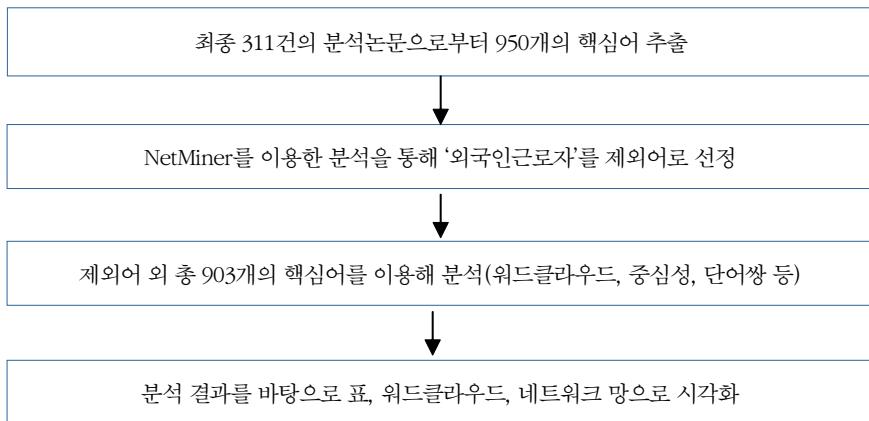
다음 분석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절차

첫째, Ris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분석논문의 정보를 MS Excel로 추출하였다. 분석 논문의 제목, 발행연도, 키워드 등을 토대로 추출하였다. 논문 정보(논문의 제목, 발행연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발행연도별로 논문의 핵심어를 바탕으로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발행논문 주제 및 키워드를 토대로 구성된 단어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의 양상을 분석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둘째, 개별 논문의 초록에서 추출된 키워드 분석을 위해 NetMiner 4.3.3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 네트워크는 내용 분석에 있어 기존의 빈도 분석 이상으로 다양한 관계 분석 지표를 통해 내용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텍스트 내 단어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중심성 단어와 주변 단어들의 연관성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연도별 전체적 혹은 부분적 연구동향을 살펴 최근 10년간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2]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 도출 과정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 도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재구성한 311건의 분석논문으로부터 950개의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그 후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처리 과정을 통해 1차 사전 작업을 처리하였다. 이는 분석을 하기 위한 키워드를 정확히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며 키워드 목록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통제, 교정, 제거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다음 <표 1>는 키워드 정제 과정을 설명하였다.

&lt;표 1&gt; 연구를 위한 키워드 정제 과정

구분	정제 전	정제 후
유의어	불법체류	미등록
	(용어 교정)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띄어쓰기 교정)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제외어	과제, 연구, 논문, 탐색, 분석, 조사, 현황, 실태, 개선, 방향, 방안, 중심으로, 활용, 논문, 모색, 관련, 고찰, 관점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 띄어쓰기로 인해 NetMiner 프로그램에서 개별 단어 인식을 막고 단어 본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없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의 단어를 정제하였다. '불법체류'라는 단어들이 분석논문 간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불법체류'는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으로 낙인찍어 차별하거나 혐오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이기에 '미등록'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근로자' 등 동일한 대상을 일컫는 단어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단어 자체에서 단지 국경을 넘어 이주해 노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의어 외에도 ‘과제’, ‘연구’, ‘논문’, ‘탐색’, ‘분석’ 등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본 제외어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에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본 연구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분석 내용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의어와 제외어가 정제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외국인 근로자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과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추출된 논문 중 가장 오래된 논문은 2010년대에 작성된 논문들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된 논문은 총 311개이며, 논문 제목의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측정값을 상위 20개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키워드에 대한 출현 빈도 분석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 (횟수)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 (횟수)
1	사회	104	11	인권	28
2	문화	100	12	만족	21
3	고용	78	13	통합	19
4	노동	59	14	직무	17
5	적응	51	15	근로	17
6	허가제	49	16	가족	17
7	미등록	43	17	정체	16
8	건강	33	18	법	16
9	정책	31	19	출입국	15
10	교육	31	20	의료	15

<표 2>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문 키워드 중에서 ‘사회’와 ‘문화’가 100여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뒤를 이어 고용, 노동이 60-70회로 많이 등장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외국인근로자 연구 주제로 여러 번 다루어졌다 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 동향에서 핵심 개념으로 여겨짐을 의미한다. ‘고용’이라는 키워드 외에 ‘허가제’, ‘미등록’이라는 단어가 빈도 높게 나타났음을 통하여,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미등록체류가 최근 10년간 연구 동향에서 핵심 주제였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 ‘문화’ 키워드가 가장 자주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논문의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에서 핵심 주제로 돋보이지 않았다.

〈표 3〉 키워드에 대한 중심성 분석

순위	키워드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1	사회	0.34375	11	건강	0.09375
2	고용	0.3125	12	통합	0.0625
3	문화	0.25	13	출입국	0.0625
4	미등록	0.1875	14	이민	0.0625
5	노동	0.15625	15	스트레스	0.0625
6	정책	0.125	16	서비스	0.0625
7	허가제	0.09375	17	교육	0.0625
8	적용	0.09375	18	관리법	0.0625
9	이용	0.09375	19	직무	0.03125
10	의료	0.09375	20	지역	0.03125

〈표 3〉에 따르면 ‘사회’의 중심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출현빈도도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는 ‘사회’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성은 ‘사회’, ‘고용’, ‘문화’, ‘미등록’, ‘노동’ 순으로 높았다. ‘고용’, ‘문화’는 출현빈도수와 비례하게 높은 중심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등록’은 출현빈도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미등록’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복지 정책에서 주목받아야 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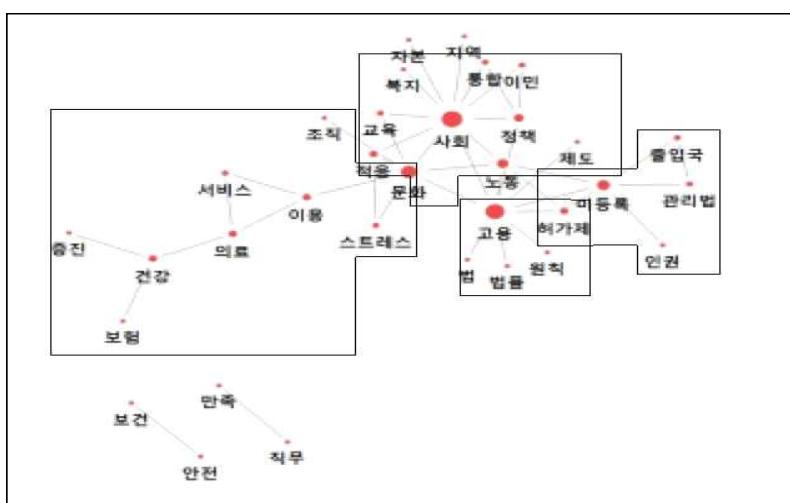
〈표 4〉를 살펴보면 단어쌍의 무게는 핵심어간의 근접성을 의미한다. ‘고용’, ‘허가제’는 가장 높은 근접성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하나의 쌍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 논문의 국문초록 속에 ‘고용’, ‘허가제’의 키워드가 가장 빈도 높게 동시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문화’, ‘사회’가 높은 근접성을 가졌으며, ‘문화’, ‘적용’, ‘사회’, ‘통합’, ‘고용’, ‘법’, ‘서비스’, ‘의료’ 등 순으로 높은 근접성을 가졌지만 ‘고용’, ‘허가제’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고용허가제’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복지 정책에서 주목받아야 함을 나타냈다.

〈표 4〉 키워드에 대한 단어쌍 분석

순위	단어쌍		무게	순위	단어쌍		무게
1	고용	허가제	79	11	고용	제도	17
2	문화	사회	63	12	고용	법률	16
3	문화	적용	30	13	노동	문화	16
4	사회	통합	27	14	보건	안전	16
5	고용	법	24	15	복지	사회	16
6	서비스	의료	24	16	고용	미등록	15
7	사회	적용	23	17	관리법	출입국	15
8	고용	노동	21	18	사회	정책	14
9	노동	사회	18	19	미등록	출입국	14
10	교육	문화	18	20	노동	허가제	14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2010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연구 관련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결중심성에 근거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3]에 따르면 네트워크 시각화는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큰 원(노드)으로,

동시출현이 강할수록 굵은 선으로 나타냈다. 노드는 키워드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핵심어간의 관계인 ‘링크’를 탐색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최근 10년간에는 사회, 고용, 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문화-고용’, ‘문화-사회’, ‘사회-고용’, ‘고용-미등록’, ‘사회-정책’, ‘사회-교육’, ‘교육-문화’, ‘미등록-허가제’, ‘고용-허가제’, ‘건강-의료’로 연결된 선이 두꺼운 것으로 보아 관련 연구가 비교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를 중심으로 이어진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었다. ‘문화’는 ‘적응’, ‘스트레스’, ‘조직’, ‘이용’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망을 형성하였다. 나타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자면, ‘스트레스’와 ‘적응’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일컫는다. 그 뿐만 아니라 ‘문화’는 ‘적응’ 뿐만 아니라 ‘조직’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은 외국인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직장을 의미하며 직장의 문화에서 적응을 내포하고 있다. 그 외 ‘문화’라는 키워드에서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한 ‘이용’, ‘의료’, ‘건강’이라는 단어들이 망을 형성하였다. ‘이용’이라는 단어에서 ‘의료’, ‘서비스’가 파생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료서비스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선행연구들은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었다. ‘사회’는 교육, 적응, 복지, 자본, 지역, 통합, 이민, 정책, 노동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망을 형성하였다. ‘사회’는 전체 네트워크 망에서 큰 축을 두고 있으며 ‘문화’, ‘고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고용’을 중심으로 이어진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었다. ‘고용’은 ‘문화’, ‘노동’, ‘미등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 2. 시기별 외국인 근로자 연구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연구로 선정된 311편의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통해 95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탐색하기에 용이한 기본적인 시각화 자료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 950개의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근 10년간 게재된 전체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위에 언급한 워드클라우드는 2010-2020년동안 게재된 분석논문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의 빈도수를 시각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연구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정제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분석논문들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워드클라우드에서 반복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문화’, ‘사회’, ‘고용’, ‘노동’, ‘허가제’, ‘미등록’, ‘적용’과 관련한 키워드가 분석논문들에서 반복되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논문들의 키워드에 따르면, ‘고용’은 고용허가제 제도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문화’는 외국인근로자가 경험하는 문화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이 있었다. 그 외 ‘사회’는 사회적응, 다문화사회 등 여러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미등록’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로 늘어난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2010, 2011년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위의 워드클라우드는 최근 10년 전체의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별 년도에 게재된 분석논문의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재분석하였다. 분석하기 전 ‘외국인근로자’, ‘국적’, ‘연구방법론’, ‘다문화학습’,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 ‘이주민’ 등에 대한 단어를 제외하였다. 이 키워드들은 분석논문의 공통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에, 워드클라우드에서 차별된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제거하였다. 2010년에 게재된 분석논문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고용허가제’, ‘건강권’,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워드클라우드가 형성되었다. 2011년에 게재된 분석논문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미등록’을 중심으로 시각화되었다. 본 워드클라우드 결과는 2010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 속에서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2010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된 시점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2020).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9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2012, 2013년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2012, 2013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빈도 높게 나타났다. 그 외 2012년에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미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2013년에는 ‘미등록’, ‘문화적용’, ‘이주노동 이자’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로 2012, 2013년에도 ‘고용허가제’ 관련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 개입방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0). 고용허

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최홍엽, 201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기과 같다.



[그림 7] 2014,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2014, 2015년에는 공통적으로 ‘미등록’, ‘문화적응’,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2014년에는 ‘미등록’과 ‘고용허가제’ 외에 ‘생활만족도’, ‘출입국관리법’,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미등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결과에 따르면 2014, 2015년 시점에서도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4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016, 2017년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2016, 2017년도에는 ‘미등록’,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6년도에 나타난 ‘사회적배제’와 2017년도의 ‘차별’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 및 소외를 포함하고 있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연구(이연옥, 2016)와 외국인 근로자가 꿈꿔왔던 한국과는 다른 현실로부터 경험하는 소외감과 한국 사회로부터의 차별 관련 연구(김광수, 2017)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2018, 2019, 2020년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2018, 2019, 2020년도에는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고용허가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그 외에 2018, 2019년도에는 공통적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관심 주제였다. 박지영·윤동율·장제욱(2019), 성윤동·윤동율·장제욱(2019)과 강병석(2018)은 고용주의 리더십 및 직무 환경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018년에 ‘직장상사와의관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학술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위주로 탐색하였으며, 총 311편의 분석 대상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분석논문들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최근 10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첫째, 연결중심성에 근거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사회, 고용, 문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왔다. 특히 ‘사회-고용’, ‘고용-미등록’, ‘미등록-허가제’ 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장 영향력있는 키워드들이었다. 특히 워드클라우드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은 2010년부터 2017년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다루었던 핵심주제였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주제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단어쌍, 출현 빈도, 연결중심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핵심 주제였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는 꾸준한 주목받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의 사업체들을 위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로 제도가 성립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고용허가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홍엽(2013)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미등록 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제도를 통한 체류를 위한 정책 탐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형기·김석호·이정환(2014)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제한된 선택을 경험해온 그들에게 사회자본을 통한 자발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기본권 보장을 넘어서 그들의 자기 실현을 도울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워드클라우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미등록’ 키워드가 빈도높게 출현하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2020년 09월 기준으로 18.9%의 규모로, 최근 10년 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가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3만명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만들었다는 점

에서 비판받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0,9). 조규식·이선희(2017)는 고용허가제의 까다로운 사업장 변경 조건이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일 까지 사업자 변경 신청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로 된 외국인 근로자는 2만 8709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사업자 변경 신청기간을 초과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이동 제한 조건이 과도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 과정이 소홀하여 이주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현장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박형기·김석호·이정환, 2014).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 ‘노동’, ‘적응’, ‘사회’, ‘문화’ 등의 단어가 빈도 높게 나타났다. 분석논문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적응’과 ‘문화’는 사회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일컫고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응 관련 연구들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연구되었다. 2000년대 초반 연구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문화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꾸준히 본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사회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에서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이춘양·김기화, 2018; 손영미·오세숙, 2012). 대부분의 논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주목하는 반면, 그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연구들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정환·이성용(2007)의 논문에 따르면, 그 당시 10년간 논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 상담, 문화예술과 같은 그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논문들은 연구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이 20년 이상동안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위드클라우드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미등록 체류 현황은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체류 기간 외에도 이전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되어 미등록 체류의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길 희망하기에 미등록 체류의 상태로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이연옥, 2016).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로 미등록 체류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사업장의

현실적 요소로 인해 미등록 체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조규식 · 이선희, 2017). 이연옥(2016)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정주민과 다른 이주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만,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2020). 그들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을 권리가 보장이 안 되었기에 불안정한 교육권 보장 및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나 학술지논문의 제목과 국문초록 속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해 동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는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며, 향후 연구 주제와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환경을 포함한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연구 동향은 이와 같은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관련 연구 동향을 도출할 수 연구함으로, 정서 지원 서비스 등 내적인 면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 본 분석 논문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 근로자, 이주 노동자 등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었다. 서종남(2010)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 용어 혼용에 따라 의미 상 혼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용어들로 공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서종남, 2010). 용어의 혼용은 지속적인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주었다(서종남, 2010). 외국인 근로자 외에 다른 이주민을 일컫는 용어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20)에 따르면, 2005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 2015년에는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였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정주민과 구별하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주민’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에 있다.

최근 발의된 「제10차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라는 용어가 일본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왔던 용어로 ‘노동’으로 바꿀 계획을 밝히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노동자’ 용어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일컫는 개별 단어를 ‘외국인 근로자’로 통일하여 사용했지만, 칭하는 용어가 이주

민과 정주민간의 심리·사회적 거리를 내포하지 않기 위해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분석 대상을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로 설정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가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관점으로부터의 연구 동향 분석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http://www.riss.k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하였으므로, 국문 초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 참고문헌

- 기타뉴스 지금 여기(2002). 미등록 아주 아동 청소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2020년 11월 10일 접속.
- 강병석(2018). 외국인 성실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3), 119-152.
- 고용노동부(2019)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김광성(2011). 아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3, 183-217.
- 김광수(2017).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희망과 배제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예술인문화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2), 747-756.
- 김태훈 · 김영순(2020).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통일문제연구*, 32(1), 69-108.
- 김태훈 · 배성훈(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다문화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59-296.
- 김혜연 · 정희모(2015).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작문 연구 동향 분석. *작문연구*, 26, 33-69.
- 박지영 · 윤동율 · 장제욱(2019). 진성리더십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 - 직무스트레스 - 인적자원관리연구, 26(3), 33-53.
- 박치성 · 정자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박형기 · 김석호 · 이정환(2014).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이직경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1), 31-57.
- 법무부(2020, 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9월.
- 서종남(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가 FGI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
- 서준일(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윤동 · 윤동율 · 장제욱(2019). 진성리더십이 한국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 직무열의. *아태연구*, 26(3), 253-286.
- 손영미 · 오세숙(2012). 아주민 문화적응에 관한 여가연구 동향. *여가학연구*, 10(1), 1-27.
- 안명숙(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문화 핵심단어 및 네트워크 분석.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6(2), 67-76.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2020). 고용허가제 정보. 2020년 11월 10일 접속.
- 유승희(2020).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문화학습적 접근, 사회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3(1), 151-184.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상(2014).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이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수상(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이승욱(201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노동법연구, 37, 85-156.
- 이연옥(2016).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21, 7-24.
- 이영주·이승민·김영환(2017).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 지역발전 연구, 26(3), 101-125.
- 이은주·이정미(2014).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삶의 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7), 4370-4379.
- 이정환·이성용(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춘양·김기화(2018).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8(2), 123-147.
- 이혜경(2020).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정책 공공가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제도신뢰, 비전공유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3(1), 27-48.
- 장인모·전순영(2015). 외국인 근로자의 조직 갈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문화적응 매개효과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28(1), 159-177.
- 정지실(2014).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다문화 공간 계획-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폐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예술공학 멀티미디어 논문지, 1(1), 1-12.
- 조규식·이선희(2017).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노동법상 문제점. 법이론실무연구, 5(2), 31-57.
- 천타잉뚱(2015).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내 베트남근로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조성식(2017).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스포츠 제약과 심리적 행복감 및 문화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185-199.
- 최홍엽(2013).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노동법학, 48, 419-45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0). IOM 본부, 한국대표부 주요사업. 2020년 11 월 10일 접속.

## 〈ABSTRACT〉

# Keyword Network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Foreign Workers' Welfare

Sumin Kim

This study aims to look at trends in foreign workers' welfare studies based on analysis papers. This study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This work utilizes a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analyzes the frequency and type of concurrent matrix based on keywords extracted from the data. The papers were published from 2010 to 2020, and were collected through Riss. It was analyzed based on journal papers that were more than candidates for the KCI. This work analyzes the frequency of emergence, connection centrality, word pairs and word clouds based on keywords through the NetMiner program. First, network visualization results based on connectivity center show that networks have been formed around society, employment, and culture. In particular, connection-centeredness and word cloud results indicated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ere the key topics. Second, the network analysis results show that among the keywords extracted from the analysis paper, there are frequently such as 'labor', 'adaptation', 'social and 'culture'. Based on the analysis paper, 'adaptation' and 'culture' refer to social adaptation and cultural stress, and they received constant attention. Third, according to WordCloud results, studies on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continued. Since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ccount for a large amount of it, a system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 Key words

Foreign Worker, Keyword Network Analysis, Welfare

논문 투고일	2020. 12. 19
논문 심사일	2021. 01. 09
게재 확정일	2021. 01. 18